

제 4강 개인의 전(全)인격화(Individuation)

결국 분석심리학적으로 ‘자아의식’의 분화 발달을 통하여 한 개인이 실현 가능한 인격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로는 ‘자아의식’의 분화 발전이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인격을 다루는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자아의식’의 발달사이거나, 의식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발달사가 될 것이다. 심지어 이 경우 인격은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젊어서 몸의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에 ‘자아의식’의 활동이 그에 따라 활발하다가,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쇠퇴와 더불어 저절로 ‘자아의식’의 활동도 그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네 단계의 과정에서 보았듯이, 실제의 인격의 변화는 매우 파라독스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의하여 저절로 사춘기에도 이르고, 성인기에도 이르지만, 이미 지적하였듯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춘기가 지나가도록 ‘자아의식’의 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형제의 인격과 동일시하여 의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분석심리학적으로 인격의 형성에 관한 내용은 결코 시간이 흐르면서 도달하게 되는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자아의식’의 태도에 의하여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개인의 진정한 인격의 발달사를 고려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한 개인의 ‘자아의식’의 분화 및 성숙의 과정을 ‘개인의 전(全)인격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개인의 전-인격화’는 ‘자아’가 ‘집단무의식’으로부터 분화하여 성장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집단무의식’의 지지와 요청을 수용해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개인의 전-인격화’ 혹은 ‘자기실현’은 ‘집단무의식’이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어 분화 발전시켜서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가진 의도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의식’이 전체인격을 대표하여 그의 내재적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인 것이다. 우리는 아동기에 누구든 ‘특별하게 되라’는 요구를 받는다. 그 요구는 실제로 내면의 요구인데도 외부에서 요구하는 사실로 받아들여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 실제로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를 이루어어도, ‘특별하게 되라’는 요구는 사라지지 않는데, 이는 그 요구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실현해야 할 ‘내적 격률’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전(全)-인격화’는 특별한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단무의식’에 이미 선천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으로 심어놓은 인간성의 이상에 관한 것이다. 내용적으로 ‘개인의 전-인격화’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적 인격의 실현으로 드러난다. ‘자아의식’이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도록 계속 분화 발전되어 왔지만, 성인기에 이르러서는 ‘자아’ 자신의 분열로 인한 이중 구조의 상태가 다시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종의 전제처럼 주어진 ‘자기(Selbst, Self)’는 바로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으로 구체화되어 드러난다. 이런 ‘자기 실현’ 혹은 ‘개인의 전-인격화’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도달하는 결과가 아니다. ‘자아의식’의 태도가 그냥 사회의 적응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간다면 ‘제 2의 자아’를 발달시켜 적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은 불가능하게 된다. ‘자아의식’이 자신의 내부의 요구, 즉 ‘집단무의식’의 상징적 요구를 이해와 수용을 해서 실행했을 때 실현할 수 있다. 이는 분석심리학적 심층 심리치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태양의 운행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던 네 단계의 그림으로 되돌아가보자. 태양과 같이 떠오른 ‘자아의식’은 生の 정오를 지나 점차 하강하여 마침내 다시 거대한 대양으로 침잠한다.

태양이 대양 속에 침잠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다. 잘 분화된 '자아의식'이 자신의 의식성을 상실하지 않고서, '무의식'과의 통합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자아의식'의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집단무의식'을 객관적으로 간주할 수 있어야 의식성을 상실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의식'의 자기귀환의 내용은 태양이 정오를 넘어서면서 시작된다. 그래서 '개인의 전-인격화'는 인생의 후반부에 요청되는 삶의 과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제시하였던 네 단계의 발달사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도달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의식'의 변증법적인 분화 성숙의 면모를 다루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면 '개인의 전-인격화'의 과정은 잘 분화 발전한 '자아의식'의 특별한 태도와 작업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다. 이는 주로 심층적 심리치료 과정에서 피분석자가 '무의식'의 태도를 이해하고 이를 '의식'의 삶에 수용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청년기에 내면의 의인화된 인격인 '아니마(anima)' 혹은 '아니무스(animus)'와의 관계를 맺으며 이끌어낸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어야 한다.

'자아'가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와의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는 '무의식'의 '보상적(kompensatorisch)' 기능을 주목하여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무의식'은 전체 정신을 고려하여 '의식'에 작용하는 일종의 조절자 역할을 하는데, '자아의식'의 일방적 태도에 보충과 보완을 위한 내용을 제공한다. '자아의식'이 외부환경의 적응을 위해 '제 2의 자아'인 '페르조나'와 전적으로 동일시를 하게 되면, 내부 환경에도 적응을 요구하는 '무의식'의 작용이 있게 된다. 바로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가 '페르조나'에 보상적으로 작용하는 내면의 인격이다.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자아'가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페르조나'의 동일시를 방해하고 저지한다. 그러므로 '자아의식'은 한편으로 '페르조나'와의 동일시를 지양하고,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의도를 반영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자아'는 자신의 일방적 태도를 개선하고 전적으로 '집단무의식'의 조절력을 신뢰하고 맡김으로써 기꺼이 '무의식'과 함께하는 통합적 인격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자기'는 '자아'인 부분인격이 다시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전체 정신에 소속되면서 나타나는 인격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페르조나'와 동일시를 하고 있으며,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와의 관계에서도 객관정신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보내고 마는 것이다. 외부 환경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없는 '자아의식'은 내부 환경에서 제공하는 심상들에도 전혀 저항하지 못하고 만다. 진정한 '개인의 전-인격화 과정'은 '자아의식'이 '집단무의식'으로부터 분화하고, 그것을 객관화 한 다음 다시 재결합을 하는 과정이다. '개인의 전-인격화'로 드러난 인격은 한 개인에서 실현될 수 있는 보편적 인간성이다. 그것은 석가나 예수그리스도처럼 한 개인이 인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인간성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개인의 전-인격화'는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니며, 모든 개별 인간의 이상이며, 한 집단의 이상의 실현이며 한 집단 및 인류 전체의 규범이 되는 대표단수가 되는 것이다.

'자기실현' 및 '개인의 전(全)인격화'에서 나타나는 자아의식의 변화 및 확장은 그냥 자아의식의 일방적 태도에 의한 변화가 아니다. 전체 정신에서 비롯된 무의식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서양 종교 가르침에서는 신의 은총이나 신의 뜻대로, 동양 종교의 가르침에서는 무위(無爲)의 상태를 강조한다. 무위는 분석심리학적으로 행위의 주체인 자아의식의 행위를 중단하고, 무의식의 자발적 활동성 그 자체를 반영하는 종교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모두 외부의 누미노제 경험이거나 내면의 누미노제 경험을 반영한 의식의 실제적 작업 과정으로 드러난다.

현대인의 의식, 성인의 의식은 이제 내면의 누미노제를 경험해야 하므로, 저절로 동양적 방식으로 ‘무아’에 이른다. 무위를 강조하듯이, 대부분의 종교의 가르침은 금식, 기도 및 명상을 요구하는데, 이런 행위도 기본적으로 자아의식의 주도력을 가장 최소화하거나, 자아의식을 희생하여 내향적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의식의 내향적 태도로 인하여 리비도는 배경으로 물러나 있는 무의식을 활성화 하게 된다.¹⁾ 자아의식의 주도력을 최소화하여 무의식의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은 무의식에게 주도력을 넘기는 것과 같다. 자아의식은 부분 정신이라는 자각을 갖고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놓음으로써,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되려는 무의식의 활동이 저절로 나올 수 있게 된다.²⁾

이로써 자아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작용하는 전체 정신으로서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다. 여기서 자아의식의 희생은 무의식의 활동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으로, 마침내 두 정신 영역은 하나의 통일체적인 인격이 되기 위해 조율을 하는 것이다. 이때 주도권을 내어준 자아는 인격의 중심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난다. 동시에 의식과 무의식을 하나의 인격으로 인식하는 전체 정신의 중심이 생겨난다. 자기(Selbst)가 전체 인격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는다. 자아는 더 이상 의식의 중심으로 기능하지 않고 전체 인격에 속한 부분으로 기능한다.

… 이제 무의식은 의식 옆에 나란히 조건적 존재의 크기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의식적 및 무의식적 요구를 가능성에 따라 활동을 고려할 정도에 이르는 데에 성공한다. 이로써 전체 인격성의 무게 중심이 단지 의식의 무게 중심인 자아(나, das Ich)가 아니라, 우리가 자기(Selbst)로 나타내는, 소위 의식과 무의식의 가능적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이런 전환이 성공한다면, 신비적 참여의 지양(止揚)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소위 더 아래층의 구조물에서는 여전히 고통을 받지만, 더 위의 층은 고통이나 기쁨으로 이루어진 여러 사건들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나게 되어, 하나의 인격성이 태어난다.³⁾

자아의식이 아무리 내향화를 하더라도 무의식의 활성화, 실제적인 무의식의 주도적인 역할이 없다면 결코 인격을 통합하게 되는 작업이 되지 않는다. 자아의 희생이라는 의식의 일방적 태도가 무아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드시 전체 정신으로 이끄는 무의식의 실질적 활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아가 자신의 본성에 귀를 기울이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려 함으로써, 인격의 전체성으로 향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처럼 ‘무아’는 자아와 무의식의 실제적인 공동 작업의 결과이다.

자아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으로 인격의 중심이 자기로 옮겨지게 되면, 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격적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보고한다.⁴⁾ 이는 자아의식의 초월 및 해방에 대한 실제적 체험의 보고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였다.

1) 줄고 <극적 명상에 관하여> (불교와 심리 제 5호)를 참고하라.

2) 대부분의 고등 종교의 가르침이 자아의식의 희생을 요구하는데, 자아의식의 희생은 무의식에 주도력을 넘기기 위한 것이다. 종교적 의례 행위에서 신성의 인격을 부각하고 그 존재를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자아의식이 주도력을 갖지 않고 복종을 하도록 하고, 그 신성에 의해 인격의 변화가 유도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3) C.G. Jung, Das Geheimnis der Goldenen Blüte, S.41

4) C.G. Jung, Das Geheimnis der Goldenen Blüte, S.41-42

이러한 상위의 인격성을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 도교에서는 <금강체>, <도(道)>, 불교에서는 부처, 서양연금술에서는 <철학자의 아들>, <철학자의 돌(라피스)>, 동양연금술에서는 <불사약> 단(丹)으로 불렀다. 이러한 표현들은 전체 정신의 표현에 대한 상징적 묘사이다. 그것은 정신적 몸체, 흔히 미묘체(subtle body)라고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고백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신성이 전적으로 인간 속에 내재화되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성을 의미하던 자아의식의 초월 및 해방, 그리고 선형적 주어진 정신영역과의 통합으로 인하여 육체적 유한성을 극복한 것으로 체험될 것이다. 이전까지는 자아의식과 개체의 육체는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아의식의 규정성으로 육체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나, 자아의식이 전체인격에 통합되면서 육적 존재 감각도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는 많은 가르침에서 영생을 보증하는 영약(Elixier)을 획득한 것으로 보고된다. 새로 태어난 인격, 즉 자아를 포함한 전(全)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격은 인간성을 지칭하는 자아에 대한 신(神), 신성에 해당한다.⁵⁾

자아의식의 희생에 의하여 주도권을 넘겨받고 새로운 중심이 생겨난 경우, 자아의식의 해체 초월 및 해방이 있지만, 개별적 인격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 전체화 과정은 의식도 함께하는 전(全)인격적 과정이므로, 개별적 가치가 새로 탄생한 인격에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자아의식이 무의식과의 만남에 있어서 부분 인격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갖지 않으면, 무의식과의 대면은 자아의식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 정신 수행의 과정에서 자아의식의 해체와 더불어 개인 인격의 상실을 맞이한 사람들이 결코 드물지 않다.

이상에서 자아의 의식성이 전체 정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됨으로써 자아의식을 초월하고 새로운 인격으로 탄생하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실제 작업에서 자아의식이 전체 정신에 포함되는 작업은 자아의식의 붕괴를 가져오는 아주 위험한 현상이 될 수 있다. 자아의식이 전체성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자아의식의 제대로 된 분화는 필수적이다. 자아의식의 불완전한 분화 상태에서 무의식과의 대면은 인격의 붕괴라는 치명적 결과에 이른다. 정신 수행에서 가장 두드러진 정신 병리적 현상은 자아의 팽창, 즉 자아의 무차별적 통합이다. 자아가 스스로 신성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신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에 이르면 자아의식이 더 이상 중심에 설 수 없다. 깨달은 자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빛이나 신성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자아는 결코 자기와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이다. 자아의 의식의 중심을 내어 놓음으로써 전체 정신이 드러날 기회를 갖게 된다. 이제 의식은 전체 정신이 드러날 수 있는 장(場)이다.⁶⁾

… 자아는 자기를 대신하여 매번마다 표명하는 의식의 대변자이다. 자아는 자기에 대하여, 행위를 가하는 자(agens)에 대해 그 행위를 받아들이는 자(patients), 주체에 대한 객체로서 있다. 왜냐하면 자기로부터 나오는 결정들은 자아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무의식처럼 자기도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로부터 자아가 나온다. 말하자면 자기는 자아를 이미 형성하고 있다. 자아가 자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는 자기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⁷⁾

5) C.G. Jung, Das Geheimnis der Goldenen Blüte.S.47-48

“… 이러한 형이상학적 주장은<<금강체>>의 이념, 황금꽃이나 일인지 정방형 공간내에 생겨나는 불멸의 혼령적 몸체에 대한 이념이다. 이런 몸체는 모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이고 생물학적인 삶의 경험을 통하여, 말하자면 열매, 태아, 어린이, 살아있는 몸 등으로서 암시 되거나 형상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심리학적 사실에 대한 상징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가장 간단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 의식이 우월한 경우 환영의 주체는 ‘내가 산다’로 믿는다. 이런 환영이 무의식의 인식을 통해서 좌절되면 무의식은 ‘나(das Ich)’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6) C.G. Jung(1942/1994): Das Wandlungssymbol in der Messe, GW11, Par.441

7) C.G. Jung(1942/1994): Das Wandlungssymbol in der Messe, GW11, Par.391

자아의식이 자신의 주도력을 거두고,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세로서 접근하는 자아는 더 이상 무의식을 지리멸렬하고 방해하는, 그래서 억압할 수밖에 없었던 정신 영역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의식은 자아의식의 개인적 편협한 태도를 교정하고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경험한다. 자아 초월 및 해방 혹은 ‘무아’의 상태는 자아 중심적 태도를 넘어 보다 보편적 인간성을 실현할 기회를 갖게 만든다. 말하자면 한 개별적 존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은 자기(Selbst)로서 주어져 있던 선형적 정신적 조건에 기초하는 것이다. 보편적 인간성이 특성의 개별자에서 실현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무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소위 소우주(Mikrokosmos)로서 대우주(Makrokosmos)와 통하게 된 존재로 부상한다. 따라서 자아초월 및 해방 혹은 무아의 상태에 이른 사람은 인류에 대한 책임, 위대한 의무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들은 그를 구원자, 구세주, 부처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한 개인에 의하여 인류는 새로운 인간성을 인간의 역사에 포함시키게 된다.

자기의 상징: 만다라(Mandala)

자아 초월 및 해방 혹은 무아의 상태에 이르면, 그 상태는 상징적인 정신 현상으로 드러난다. 만다라 형상은 가장 널리 알려진 전체성의 상징 중 하나이다. 이것을 특별히 신, 신성과 인간성의 합일 혹은 자아의식과 무의식의 합일로 이루어진 상징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아와 무의식의 통합에 따른 정신의 현상들이 주로 원(die Runde, 圓)이나 구(球), 숫자 4 혹은 정사각형으로 형상화 된다. 이러한 원이나 정사각형의 기하학적 형상들이 만다라 형상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원이 가장 많이 알려진 만다라 형상이다.⁸⁾ 원으로 나타난 전체성의 상징은 주로 중심을 고려한 사등분 혹은 넷으로의 분할된 현상을 표상한다. 원은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을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서, 이는 중심을 향해 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또한 일정한 영역으로 간격 없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는 그 자체로 구분, 분열 없음, 전체적 통합 및 통일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원은 태어나기 전, 분열되기 전의 상태, 자궁이나 모태와 같은 시초의 형상화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거두어들이는 종착지의 형상화이기도 하다. 융은 특별히 원이나 구의 형상이 중세의 연금술사들에게는 양성적 인간의 결합 혹은 합일을 상징하는 것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자아 초월 및 해방 혹은 ‘무아’의 상태를 표상하는 원 혹은 구는 대극의 합일, 즉 자아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에 의한 통일체적 인격을 표명하는 상징임을 확인하였다.⁹⁾

8) C.G.Jung(1940/1962): Psychologie und Religion, GW11,Par.113

“...불교의 만다라는 원인데, 이것은 주로 티벳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둥근 파드마(Padma) 혹은 연꽃으로 구성되는데, 네 방위와 네 계절을 암시하는 네 개의 문이 있는 사각의 건물들로 표현된다. 중심에 부처 혹은 시바와 샤틀의 융합, 혹은 같은 가치를 가진 도르예(dorje, 금강저) 상징이 발견된다. 이들은 안트라들 또는 제의의 도구들로서, 명상을 통하여 요가 수행자가 신적 전체 의식으로 변환하는데 쓰인다.”

9) C.G.Jung(1940/1962): Psychologie und Religion, GW11,Par.92-93

“<Rosarium Philosophorum>의 저자는 말한다: "남자와 여자로부터 둥근 원을 만들라. 거기서 정사각형(Quadrat)을 추출하고, 이 정방형에서 삼각형을 추출한다. 원을 둥글게 하라, 그러면 너는 현자의 돌을 얻으리라.”

이 경이로운 돌은 양성체적 성질을 가진 완전한, 살아있는 존재로 상징화 된다. 그것은 엠페도클레스

숫자 넷으로 나타나는 전체성의 상징은 종종 8, 16, 64등, 4의 배수로 특징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모두 하나에 대한 부분들이 갖는 특성들을 반영한 상징이다. 융은 기독교의 신성이 삼위성(Trinität)인데 반하여 무의식의 자발적 상징은 사위성(Quaternität)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독교적 삼위성에서는 악마적 요소 및 여성적 요소가 빠져 있다면, 자연적인 전체성의 상징은 언제나 제외된 네 번째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숫자 넷으로 드러난 전체성의 상징은 종종 정사각형, 혹은 정육면체의 형상으로 강조된다. 이들도 모두 네 요소들의 통합을 강조하는데, 그 요소들의 결합에서는 언제나 하나의 중심을 고려함으로써 사각의 원(circulus quadratus)과 같은 기하학적 형상이 된다. 이것으로 결국 잘 분화된 의식을 포함한 전체 정신의 상징이 된다. 결국 만다라 형상은 원으로 나타나는 전체성과 정신의 네 요소 혹은 의식의 네 기능들에 해당하는 사각의 형태가 함께 하는 것이다.¹⁰⁾

원과 사각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만다라 형상은 언제나 하나의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을 둘러싼 일정한 주변의 영역표시가 있다. 하나의 중심에 집중되는 원으로서 표현되는 영역이다.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그 중심에 의해 지켜지고 보호되는 사각의 영역으로 구체화 한다. 이를 자아의식과 무의식의 통합과정에서 고려해 본다면, 만다라의 중심은 자기이며, 그 자기를 중심으로 둘러싼 일정한 영역은 중심을 내어주며 전체성에 포함된 의식성을 의미할 수 있다.

융은 만다라 형상에서 특별히 원이 보호 작용을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원은 “새어나감을 막기 위한 혹은 외부적인 것에 이끌려 변화하는 것을, 재앙막이 식으로 막기 위한 원초적 경계지역”을 의미한다.¹¹⁾ 원은 실제적으로 대극의 합일에 해당하는 작업 과정에서 해체된 자아의식이 흩어지지 않고 전체 인격의 중심으로 집중하여 배열될 수 있게 하는 모성적 자궁, 혹은 그릇 역할을 한다. 동시에 이는 대극적으로 있는 여러 요소들을 모아 하나의 통일된 인격으로 탄생하게 하는 변환의 장소이다.¹²⁾ 이런 모성적 보호 장치이자 변환의 장소에서 자아의식은 더 이상 다른 것과의 동화에 의하여 중심을 잃게 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모든 것이 근원적인 것으로 되돌려진 상태, 그래서 비로소 인격의 중심, 내면의 신성에 헌신할 수 있게 된 상태에 도달한다.

위와 같은 만다라 상징은 크게 세 가지 경우들에 등장하는 것 같다. 우선적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자아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의 결실로서 등장한다. 종종 만다라 형상은 그러한 대극의 합일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등장한다. 이러한 경우를 선취(Vornehmen)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자아의식의 태도가 외부로 향하던 관심을 거두어들이고 내향적 태도를 갖추면 무의식은 그에 따른 일종의 전체 인격에 대한 전망을 의식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에 등장하는 만다라 형상은 그 상징을 매개로 의식이 자신의 과제에 더욱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무의식의 전체적 전망에 의하여 의식은 직관적 통찰을 얻게 되며 작업의 방향감을

의 완전한 구, 가장 지복한 신과 플라톤이 말하는 둥근 구형의 양성체 인간에 해당한다.”

10) C.G.Jung(1940/1962): Psychologie und Religion, GW11, Par.136을 참고하라.

11) C.G. Jung, Das Geheimnis der Goldenen Blüte, S.22

12) C.G.Jung(1940/1962): Psychologie und Religion, GW11, Par.138

“... 현대의 만다라에서 분명하게 표현된 경험은 신적인 상을 더 이상 투사를 통해 경험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특징적인 경험이다. 신의 상을 밖으로 되돌리고 자기 안으로 내사(Intojektion)한 결과 이들은 팽창과 인격 분해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중심을 둥글게 혹은 네모나게 둘러싸고 있는 것은 보호 벽으로, 연금술의 그릇(vas hermeticum)을 만들어 어떤 폭발이나 붕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만다라는 그렇게 중심, 바로 자기를 향한 절대적인 집중을 가리키며, 또한 이를 지지한다. 이것은 자아중심주의와는 전혀 다른 상태이다. 자아중심주의와는 반대로 오히려 해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기 제약이다. ...”

획득한다.¹³⁾ 대부분의 만다라는 여기에 속한다. 그밖에 만다라 형상은 자아 분열 및 붕괴와 같은 정신 병리적 상태에서 회복될 때 나타나기도 한다. 전체 정신의 중심에 자기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주변으로 분열된 의식의 파편들이 모여들게 됨으로써, 자아의식이 재탄생될 수 있다. 이때 등장하는 만다라는 활성화된 무의식에 의해 해체의 위기를 겪었던 자아의식의 치유적 회복을 알리는 상징이다. 정신 병리적 상태에서의 자아붕괴에서 회복할 때 보이는 인격의 재탄생은 정신 수련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자아 초월 및 해방의 상태와 매우 유사하다. 자아와 무의식의 통합에서 보이는 자아의 해체 및 재탄생은 같은 정신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의 병적 상태는 개인 인격의 기초가 되는 자아의식의 재탄생이라면, 후자는 전(全)인격적 존재의 상징적 탄생을 나타낸다.

융은 현대인의 만다라가 과거의 만다라와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과거의 만다라의 중심은 신, 신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인의 만다라의 중심에는 비어있거나 인간성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진정한 만다라는 중심에 인간성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중심에 신이 없거나 인간성이 대신하게 되는 것은 모든 정신의 활동들이 인간의 내부의 영역으로 옮겨오면서 모두 인간적 요소, 인간의 내적 구조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다라 중심에는 인간과 신이 함께 해야 한다. 만다라 중심은 인간과 신, 신성이 함께하는 상징적 자리가 될 것이다. 만다라 중심은 이제 신도 인간도 아닌, 혹은 신이자 인간인, 제 3의 상징으로 드러나는 곳이다.

… 이렇게 만다라는 예전에는 구체적 현실이었던 고태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제는 상징적으로 되풀이 한다. 이미 언급한대로 티메노스의 거주자는 원래 신이었다. 그러나 현대인의 경우 만다라 안에 사로잡힌 자 혹은 잘 보호된 주민은 신이 아닌듯하다. 현대인의 만다라에서 이용된 상징들, 즉 별, 십자, 구 등은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명 인간 인격의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자신이, 혹은 그의 가장 내면에 있는 심혼이 만다라의 포로, 만다라의 보호받는 거주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의 만다라는 그 중심에 통상적으로 신격이 발견되는 고대의 마술적 원에 놀랄 만큼 가깝다. 그러나 현대적 만다라에서 인간은 - 자기 Selbst의 표현으로서 - 신격을 대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징화 한 것이다.¹⁴⁾

13) 이러한 선취 혹은 무의식의 전망도 모두 무의식의 실제적 참여가 있음을 나타낸다.

14) C.G.Jung(1940/1962): Psychologie und Religion, GW11, Par.139